

# 순창군, 일본 양식 충혼불멸비 교체

“뾰족한 사각뿔 일본식” 지적  
전통 양식으로 새 비석 제작  
6월 6일 현충일 맞춰 제막



일본 비석 논란을 빚고 있는 충혼불멸비(왼쪽)와 새로 제작되는 충혼불멸비. <순창군 제공>

일본식 비석 형태를 지녔다는 지적을 받아 온 순창의 충혼비가 현충일에 맞춰 교체된다. 27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제일고등학교 내에 있는 충혼불멸비를 우리 전통 양식으로 새롭게 제작해 현충일(6월 6일)에 제막할 예정이다. 충혼불멸비는 한국전쟁 때 전사한 지역 출신의 전몰 용사와 민간인을 추모하고 참전 유공자들 업적을 기리기 위해 주민 성금으로 1959년 11월 10일 건립됐다. 하지만 지역에서 ‘비석의 건립 양식이 일본식 충혼비(忠魂碑)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순창군이 전북동부보훈지청 등에 문의한 결과 “충혼불멸비 건립 양식이 일본식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충혼불멸비의 뾰족한 사각형 뿔 형태 등이 일본의 전사자 묘지나 신사 등지에 많이 세워져 있는 것과 양식이 같다는 것이다. 또 입제장정기에 일본이 사각형 뿔 모양의 충혼비나 탑을 전국 곳곳에 세우고 참배를 강요했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에 순창군은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해 2000여 만원을 들여 새 충혼불멸비를 제작해 현충일에 이를 제막하기로 했다. 설이 일본식 모형을 본떠 만들어진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워 교체하기로 했다”이라며 “앞으로 중요시설에서 일본 잔재가 확인되면 우리의 전통 양식에 맞춰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 새만금청 RE100 연계 첨단 제조기업 공모 마감

1개 컨소시엄 제안서 접수  
탄소중립·스마트 산단 모델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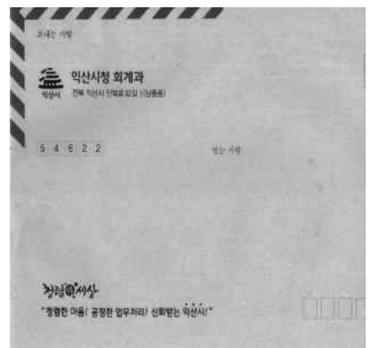


새만금개발청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탄소 중립과 스마트그린 산단의 모델(위치도)을 구현하기로 했다. 27일 새만금청은 “RE100 연계 첨단 제조기업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면서 “공모에는 1개 컨소시엄(연합체)이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다음달 평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이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업시설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인접 장소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직접 소비하는 국내 최초의 사업이다. 기업은 첨단 제조기업으로 RE100을 이행해야 하며, 3000억원 이상 투자와 3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간 투자협약과

사업협상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양청도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새만금청 RE100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언제나 THE 청렴한 익산시’...청렴 봉투 제작

익산시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청렴 의지 실천을 위해 청렴 봉투(사진)를 제작했다. 익산시는 공직자의 으뜸 가치인 청렴을 강조하고 노력하는 회계과 전 직원의 모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봉투를 제작해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렴 봉투에는 ‘언제나 THE 청렴한 익산시’, ‘청렴한 마음! 공정한 업무처리! 신뢰받는 익산시’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 제작된 봉투는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 등에게 발송할 우편물이나 각종 안내문 등에 담겨 전달될 예정이다. 청렴 봉투 사용은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 중 하나인 행정 봉투를 이용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행정 봉투를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밝힌 만큼 청



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의 실천을 위해 매일 전 직원을 상대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정읍시, 정읍천 등에 메기 치어 47만 마리 방류

정읍시가 사라져 가는 토종어류의 자원 확충과 보전을 위해 동진강 수계 지방하천인 정읍천과 칠보천, 원평천에 메기 치어 47만마리를 방류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방류 행사는 내수면 생태계의 서식 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토종 어종의 자원을 증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엔 방류한 메기 치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 이상 건강한 종자만을 선별했다. 시는 방류된 어린 물고기들이 자연 생태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서식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공유수면 내 풍부한 어족자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도 붕어와 동자개 치어 26만마리를 치어 생육 환경조건이 좋은 저수지와 하천에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난 26일 수산인 단체와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정읍천과 칠보천, 원평천 일원에 메기 치어를 방류했다. <정읍시 제공>

# 고창군, 드론 활용 벼농사 재배기술 시연회

농촌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창군에서 드론을 활용한 벼농사 재배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지난 24일 고창군 신태면에 드론을 활용한 직파법과 드론 모심기 등 일손 부족 해법을 위한 농업 재배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드론 직파법은 기계를 이용해 벼를 이앙하는 것보다 논 1ha당 120만원의 절감할 수 있다. 또 육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드론 모심기는 벼의 파종량을 늘려 모내기가 가

능한 모의 수를 늘리고, 이앙할 때는 심는 모의 수를 줄여 단위면적당 필요한 육묘 상자의 수를 줄이는 기술이다. 농진청 연구결과와 기존 재배법과 비교해 파종부터 이앙까지 노동력은 27%, 비용은 42%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시연회를 통해 벼농사에서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며 “드론 직파법과 드론 모심기가 농가 전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가축 폭염 폐사 방지 시설·장비 지원

남원시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피해를 방지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원시는 올해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함에 따라 축산물 생산성 저하와 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폭염대비 시설·장비를 중심으로 진

행된다. 이를 위해 자가발전기, 안개분무기, 제방기, 쿨링패드, 지붕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한다. 시는 총 17억원을 투입해 163농가에 881대의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는 가축 면역력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약품을 79농

가에 6520kg 지원한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규모는 495개 농가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파주세요!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B Energy